

농협 보성군지부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농협 보성군지부(지부장 김양근)는 최근 보성군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농협 보성군지부 제공>

광주소방본부, 육아원 방문 '산타' 행사



광주소방안전본부 마재운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 20여 명이 최근 광산구 입곡동에 위치한 용진육아원을 방문해 '산타가 된 소방관' 행사를 열었다.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사진)이 2015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선정됐다. 명 의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해남을 남송천, 금자천 피해상습지 복구 등 18개 공약사항을 발표,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이미 11개 공약을 완료했다. 6개 공약에 대해서는 보류하거나 취소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의정보고회와 각종 현안사업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들과 꾸준한 소통해왔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현석기자chadod@



인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승진 ▲전북지역본부 기업지원팀장 김경오 ▲광주·전남지역본부 대별지사장 이민식
 - ◇전보 ▲전북지역본부장 임종인 ▲광주·전남지역본부 입주지원팀장 김옥선 ▲광주·전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장 황상현

“뇌졸중 환자들이 재활치료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국내 첫 '뇌손상 인지향상 앱' 만든 광주대 허명 교수팀

“일반인을 위한 기억력 향상 앱들은 많지만 정작 환자를 위한 앱(APP)은 없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재활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광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허명(45) 교수와 학생들이 '뇌손상 인지향상'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만들어 무료 배포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뇌손상 환자들의 인지능력(기억력·사고능력)을 회복하거나 향상하는 앱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든 앱이 주목받고 있다.

앱 개발에는 작업치료학과 4학년 고재건씨와 3학년 권민지·이은지·최원석·박민혁·이건탁·김문주·김준호·김형준씨 등 9명이 참여했다. 이제성·박진우·임완섭·주광락(이상 컴퓨터공학부 3학년)씨도 재능을 기부했다.

“외국에는 뇌손상 환자, 장애인을 위한 재활 앱이 있어도 국내에는 없어요. 국내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재활 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김민지)

이들이 개발한 앱이 특별한 것은 뇌손상 환자를 위해 특화했다는 데 있다. 기존에 출시된 '두뇌훈련', '기억력 강화' 등 앱과 다른 점이다. 환자들이 집에서 앱을 이용해 재활치료

관련 사진 500여장 탑재

환자들 집에서 재활 가능

병원비 부담도 덜 수 있어

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이 앱을 이용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병원의 재활치료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뇌졸중이나 치매를 겪은 환자들은 일종의 '지남력'(指南力)이 떨어진다. 공간과 시간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허명 교수팀의 '뇌손상 인지향상'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설계됐다. 가령 콩(豆)을 사진으로 보여 주면서 '이 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퀴즈 형식의 게임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장소 맞추기'와 '시간 맞추기', '다음 행동 예상하기' 등 지남력 영역 179개, 집중력 및 기억력 영역 39개, 실행기능 영역 117개 등 모두 33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허 교수와 학생들은 앱 개발을 위해 지난 3개월간 프로그램에 사용할 사진촬영 작업에



광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허명 교수(왼쪽 다섯번째)와 학생들이 '뇌손상 인지향상'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인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매달렸다. 사진 500여장이 앱에 탑재됐다.

광주대 작업치료학과에서 뇌손상 환자를 위해 앱을 제작·개발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뇌손상 환자를 위해 팔의 재활을 돕는 동영상 앱을 만들었다. 이 역시 환자를 위해 무료 배포했다.

“더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고 싶었는데,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쉬움도 많습니다. 내년에는 더 뛰어난 앱을 만들고 싶습니다.”(이제성)

앱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허 교수는 학교의

재정지원을 받아 재활치료학과에 앱 전용 서버(400만원 상당)를 갖췄다. 끊임 없는 연구로 소외받는 환자를 위한 앱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다.

허명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앱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만들어 아직 부족한 점도 있지만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살레시오중학생들 10년째 후배사랑

후배 교복 기금 마련

거리 모금활동 벌여

광주 살레시오중학교 학생들의 후배사랑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살레시오중학교(교장 김충배)는 지난 24일 북구 일곡동 일곡우체국 앞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거리모금 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학생회 위원과 종교부 학생 50여명이 자발적으로 실시했으며, 직접 만든 모금함을 들고 학교에서 배운 कै발송과 성가를 부르며 거리에서 성금 모금을 했다. 성금은 가정형편상 교복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교복값 마련을 위해 쓰인다.

이 학교 학생들이 모금활동을 통해 후배들의 교복 구입과 장학금 등을 지원한 것은 올해로 10년째다. 모금운동 첫해인 2006년에는 176만



원의 성금을 모아 일곡동주민센터에 전달했고, 2007년에는 102만원, 2013년에는 189만7590원, 지난해 161만3100원을 일곡동주민센터에 '사랑의 교복비'로 모금액을 전달했다.

구현우 학생회장은 “작은 정성이 모여 희망을 만들고 선한 결과를 이끄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충배 교장은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나눔의 장이 돼 힘든 겨울을 보내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여수 프렉스에어코리아, 아동 문화예술사업 670만원 후원

프렉스에어코리아 여수공장(공장장 박치국)이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전남본부(본부장 최영철)에 지역 아동들의 문화예술사업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여수산단에 입주한 프렉스에어코리아 여수공장 임직원들은 지난해부터 매달 정기후원을 벌여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후원금 670여만원으로 올해까지 총 1100만원을 후원했다.

또 프렉스에어코리아 여수공장 직원들은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연습장소인 여수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응원해 왔다.

또 지난해부터 정기연주회 현장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고 있다.

박치국 공장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직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뜻깊은 나눔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아동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프렉스에어코리아는 세계 3대 산업 가스 및 화학회사로, 미국 프렉스에어코리아가 한국법인을 두고 1975년 국내에 처음 설립됐다.

현재 서울과, 용인, 화성, 여수, 창원, 아산, 현곡에 제조공장을 운영 중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전라도 장터 사람들

<9> 완도 고금장터 김영래씨

김영래(70)씨는 40년 동안 장날마다 배를 타고 고금도 섬으로 장사를 하러 다녔다. 고향은 마령이고 23살에 결혼해 1남 5녀를 키웠다. 그는 과일, 곡물, 야채 장사를 30살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마령, 고금, 완도 장터를 지키고 있다.

마령 선착장에서 고금장터로 가는 '뚝딱선'의 소요시간은 3~4시간이었고 배삯은 1인당 2~3000원했다. 장날 전에 미리 다녀와 여인숙에서

뚝딱선 타고 40년간 과일·곡물·야채 장사

하룻밤 묵은 뒤 새벽부터 장사를 하고 다시 배를 타고 나갔다.

지금은 자동차로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연결돼 30분이면 장터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5년 전에 다리가 개통했다.

섬으로 가는 교통이 편리해졌지만 장날에 장사를 하는 상인은 김씨와 가끔 오는 생선장수뿐이다.

그는 이웃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고금

도 장터를 지킨다. 이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옛정이 아쉽고 그리워하다.

김씨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평생 단골이다. 물건도 사고 5일마다 만나 하루 종일 수다를 떨며 장날을 즐기며 산다. 엉덩이를 붙이고 안부도 서로 묻는 등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김씨는 필자에게도 사과 하나 깎아 먹으라고 던져주더니 다방 커피까지 사주고 왔다. 살갑게 말도 붙인다. “밥은 먹고 다니는 게? 굶지 말고 잘

챙겨 먹고 다녀.” 시골장터가 협소해지고 사람들이 줄고 있지만 생명력을 잃지 않은 이유는 끈끈한 정이 장터를 오래도록 지켜주고 있어서일 것이다. 장날 이슬비가 내리고 장터에는 김씨의 천막만 이 큰 마당에 설치돼 있었는데, 아낙네들이 옮기 중이 모여 앉아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시골맛은 이런 풍경에서 느껴진다. 우리의 옛 정서였고 사람 사는 분위기다. 이수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충진회

▲진주강서 광주·전남충진회(회장 강원구) 수는 강항선생 강양록에 대해 연구 및 발표=29일(화) 오전 11시 진주강서충진회관 062-228-3368.

동문회

▲송의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최경채) 제18차 정기총회=28일(월)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동구 지원동 삼영웨딩홀 062-234-3030.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혹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각종 체험활동,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 ▲디자인 세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 수업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리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 ▲안전모니터봉사단원=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 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원=자원봉사자 봉사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 ▲푸른길통동문화마을 회원=푸른길 자립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 ▲설천차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 ▲김호진씨 별세 태형·묘선·현씨 부친상=발인 28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5.
- ▲박기복씨 별세 하동명·명강·육공·숙희·경덕·양순씨 모친상=발인 28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 ▲이현숙씨 별세 최성주·명주·애자·선화씨 모친상=발인 29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8분향소 062-231-8908.
- ▲안영복씨 별세 봉주(전북일보 부국장)씨 부친상=발인 29일(화)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1층 1호실 063-250-1444.
- ▲김호진씨 별세 태형·묘선·현씨 부친상=발인 28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 ▲박기복씨 별세 하동명·명강·육공·숙희·경덕·양순씨 모친상=발인 28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 ▲이현숙씨 별세 최성주·명주·애자·선화씨 모친상=발인 29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8분향소 062-231-8908.
- ▲안영복씨 별세 봉주(전북일보 부국장)씨 부친상=발인 29일(화)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1층 1호실 063-250-1444.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401호 故이봉희 님(여/87세) 子/子婦: 정태원/박희경 孫/孫婦: 정연주/이정운 *발인: 12월 28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402호 故김분례 님(여/86세) 子/子婦: 김종순/양연례, 종락/모용란 孫/孫婦: 김병덕, 양민/이도봉, 미혜오 *발인: 12월 28일 *장지: 화산동면 선영 *연락처: 227-4314
101호 故변재문 님(남/73세) 子/子婦: 변승현, 준호/김유영, 준용 女/婿: 변정희/최우경, 정민/박현영 未亡人: 김금희 *발인: 12월 28일 *장지: 보성회천 선영 *연락처: 227-4385	102호 故박주하 님(남/54세) 子: 박진, 건 女: 박재원 未亡人: 김미희 *발인: 12월 29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